



#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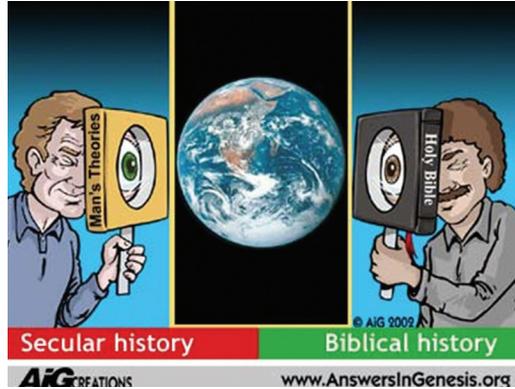
Volume 16 Number 1 • 1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새해를 맞이하며

## 하나님의 편견

수 년 전 산실병동에 산모가 물 안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목욕탕 비슷한 시설을 해놓고서 그것이 최신편이라고 한 때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태아가 양수 안에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물 속에서 분만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프랑스의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 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도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을 한 두어 번 본 것 같은데 그 설비를 직접 쓰는 광경은 본 적은 한번도 없고 얼마 안 가서 슬그머니 그만 사라져 버렸다. 그 후에는 또 부모와 선생아의 심리적인 결합에 좋다고 자연분만이 한창 유행이어서 자연분만을 원하는 산모가 많았던 날에는 이방 저 방에서 쉬지 않고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요즘은 그것도 뜸해져버렸다.

해산의 고통의 근원인 에탄동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한 섭리적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역사 6,000년 중 이제 겨우 첨단의학이 그나마 제공하는 무통분만 방법을 마다하고 자연분만이라는 ‘자연’이라는 솔깃한 말에 또 속아 넘어간 하나의 현장 증거였던 것 같다. ‘자연적’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들 중의 하나다. 이런 말이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표현이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자연주의 사상은





루소(1712-1778)로부터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 루소는 다윈보다 일세기 전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나 천주교로 전향한 사람인데 이신론자로서 성경의 기적을 일체 배척했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로 인한 인간의 원죄도 부정했다. 그러한 불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의 철학을 만들어 내었는데 즉, 사람은 단순한 삶을 영위할 때 선천적으로 소유하는 선함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이었다. 그의 자연주의 철학은 그 후 19세기 중엽에 소개된 자연주의 과학 이론인 다윈의 진화론을 더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한 철학적인 바탕을 사회에 마련해 주었다.



루소와 다윈, 이 두 사람의 사상, 즉, 자연주의와 진화론을 합치면 미국의 세계적인 진화론사상의 교육가 존 듀이의 교육사상이 탄생하게 된다. 그의 비성경적인 교육사상이 어떠한 악영향을 미국사회에 끼쳤는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랄 때 경험한 경직되고 주입식인 교육방법으로 개인의 독창적인 자유의사나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불평을 듣곤 한다. 이것은 교육방법론과 가치관의 차이를 혼동한 오해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지향하는 방법이 존 듀이의 개방적이고 상대적인 개인의사 존중의

교육방법을 모방하는 것으로 믿고 따라간 그 동안의 한국의 개방 교육실정에서 좋지 않은 열매를 미국처럼 우리도 벌써 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라는 단어는 20세기 초반에 아인슈타인에 의해 소개된 특수 상대성 원리와 그리고 그 후에 소개된 일반 상대성원리에 쓰여진 물리학 용어였는데 그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모든 가치관에 남용되어 이제는 그 반대 단어인 ‘절대’라는 표현은 마치 흉칙한 말이기라도 하듯이 사람들이 피하게 되었다. ‘상대적’이라는 단어는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매혹하여 모든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급기야는 도덕적 상대론과 종교적 다원론으로 발전하여 교회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편협하지 않고 개방적이며 포용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에게나 어떤 특정한 그룹 할 것 없이 이 단어를 아주 쉽게 적용하기를 원한다. 어느 하나만 옳다는 것을 배격한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진리라든가





절대적인 가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 것은 너무 독단적이라는 것이다.

창조과학사역의 강이나 글의 경향은 인기있는 자연적이나 상대적인 주장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인 초자연적이나 절대적인 표현이나 내용으로 소개가 된다. 그 이유는 절대적 진리인 성경이 사역의 바탕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과학을 성경에 대한 믿음의 선언으로 연구 발표하는 대신에 학문적인 연구 태도로 접근하는 분들은 조만간 욕구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얼마가지 않아서 이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상반된 의견을 고집하게 된다. 창조과학을 학문의 한 분야로 접근하는 분들은 시대사조에 따라 모든 관점을 다 수용해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자세에서 조만간 창조과학사역의 편협적인 내용을 바꾸어 보길 시도한다. 나의 주장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기를 원할 때 그 주장의 객관 타당성을 강조하게 되고 또한 속한 현사회의 다수가 인정하는 편에서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나의 자세를 분명히 밝히기 보다는 여러 가지의 다른 자세를 장황하게 현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오히려 혼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편협적이고 열광적인 태도보다는 모든 주장을 다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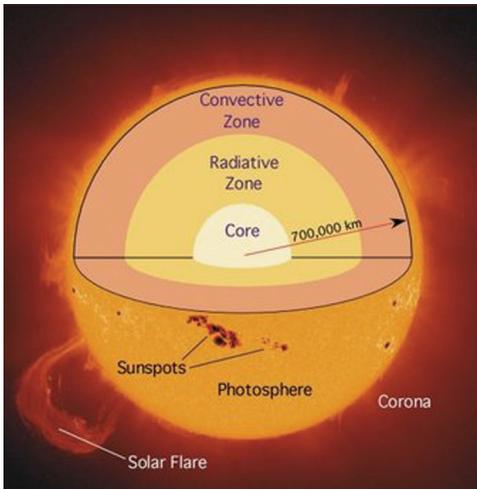
사도 바울은 열광적인 사도였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열광적이었던 사람이었다. 마틴 루터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문제와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 열광적이었다. 이들을 보고 그만 적당히 하지 될 그러느냐고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진리는 여러 가지일 수는 없다. 만일 그 중의 하나가 진리라면 그 한 사람의 편견과 열광적인 태도는 바람직하다. 편견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만일 진리 쪽에 서는 것이 편견으로 불린다면 편견을 얼마든지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편견이며 그 편견의 내용과 결과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없느니라”(요 14:6). 이것은 하나님의 편견이다. 하나님의 편견과 우리의 편견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6일 창조와 6,000년의 우주역사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한 믿음과 성경을 세계관의 바탕으로 삼는 기독교인의 상식적인 편견이다. 2008년 새해에도 이러한 편견이 여러 가지 면으로 소개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독자가 되길 바란다.



최인식  
창조과학  
선교회 회장,  
의사



# 태양보다 **빛**을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선언하고 있다.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6일 동안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들 수 있는가?”하고 창세기의 말씀이 말도 안되는 것으로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이 과거보다 오늘날 훨씬 기세가 꺾였다. 이는 많은 이들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비이성적이라고 여기고 무시하였지만 그 동안 과학이 기원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이 성경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창세기 1장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시간(Time), 공간(Heaven), 그리고 물질(Earth)들의 요소와 빛을 지으셨다. 진토의 근원 (잠언 8:22-31)으로 시작된 물질의 조화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잡한 체계로 이행되었고 드디어 우주를 형성하는 물질들로 정돈되었을 것이다. 기록된 창조의 첫날에 이미 시간, 공간, 그리고 빛과 함께 물을 포함한 물질들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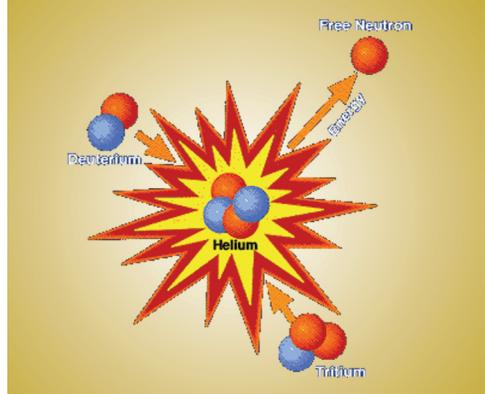
오늘 날 과학자들은 태양이 빛의 근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또 현대 물리학에서 물질은 빛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더욱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연합된 연속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창세기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빛의 창조로 첫날을 시작하고 있다. 굳이 앞의 연속체 개념을 언급할 필요 없이 성경 말씀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다.

성경에는 한 마디로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빛으로 첫 날의 낮과 밤이 나누어졌다(창1:5). 그 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지구의 자전으로 둘째 날과 셋째 날이 계속되었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



시고 첫 날 창조하신 공간을 채우셨다 (창 1:14-18).

오늘 날 태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태양을 하나의 핵발전소(Nuclear Power Plant) 쯤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성 물질의 핵분열(Nuclear Fission) 반응을 조정하여 핵분열시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런데 태양은 중심에 수소의 동위원소인 디트로늄(Deuterium)과



트리튬(Tritium)이 핵융합(Nuclear Fusion) 반응으로 헬륨(He)으로 바뀌면서 전자기와 빛 에너지와 중성자(뉴트리노)를 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태양 표면에 거대한 열덩어리(Granule)들이 끊임 없이 내부로부터 분출됨을 관찰해 왔다. 이 열덩어리들은 섭씨 4000도로 추정하며 태양의 표면인 대류층의 상단을 형성한다. 물론 현재의 첨단기술로도 태양의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태양은 섭씨1400만도 이상의 핵융합 반응이 중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중간에 복사층과 그 위에 대류층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핵융합반응이 이루어지려면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데 학계에서는 빛이 없는 화학반응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태양이라는 핵발전소에 핵융합반응이 시작되려면 물질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는 누군가가 점화(Fuse)를 시켜야 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같다. 성경에는 특별히 넷째 날에 만드신 태양보다 먼저 빛을 창조 첫날 만드셨다고 적고 있다. 이는 이치에 맞는 놀라운 말씀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창조의 내용을 보면 엄격한 질서가 있다. 식물과 동물 창조를 위하여 먼저 질소와 산소가 풍부한 대기와 육지가 준비되었고 각종 물고기들과 새들도 창조되기 전에 그들의 환경이 먼저 조성되었다. 마지막 창조 6일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을 준비하신 후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셨다. 특별히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 26-27)”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이 아니며 전기전능하신 창조자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다.





## 현대 변증학자

**최** 근에 믿음을 체계적으로 방어하는 기독교 변증학이 활발해지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알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음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라고 명령하고 있다(벧전 3:15). 많은 신자들이 이런 개념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몇몇 기독교 대학교에서는 변증학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고, 수많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과 몇 개의 기독교 TV 프로그램에서도 변증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언을 하거나 특별한 종교집단에서도 변증 사역들이 있다. 고등학생들 혹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변증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크리스천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준비시키는 노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노력은 몹시 필요한 사역이다.

대부분의 크리스천 변증가들은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ICR(미국창조과학연구소)에서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는 것은 모든 성경을 믿는다는 것, 젊은 지구 창조의 문자적 성경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변증사역들이 어떤 형태의 진화론이나 수억년의 지구라는 생각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지구 나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통적인데, 그것은 “창조 3일간은 젊은 지구를 믿고, 3일은 수억년을, 그리고 하루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가끔 필자는 라디오의 “변증” 프로그램에 초대된다. 그런데 초대된 모두가 너무도 흔한 경우 자주, 창조에 관한 성경을 방어하는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창조가 현대 과학 이론들에 비추어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곤 한다. 필자 자신은 과학이 젊은 지구를 지지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 성경은 권위가 있고 확실하다. 스스로 크리스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빅뱅 우주론, 점진적 창조론 혹은 유신론적 창조론을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기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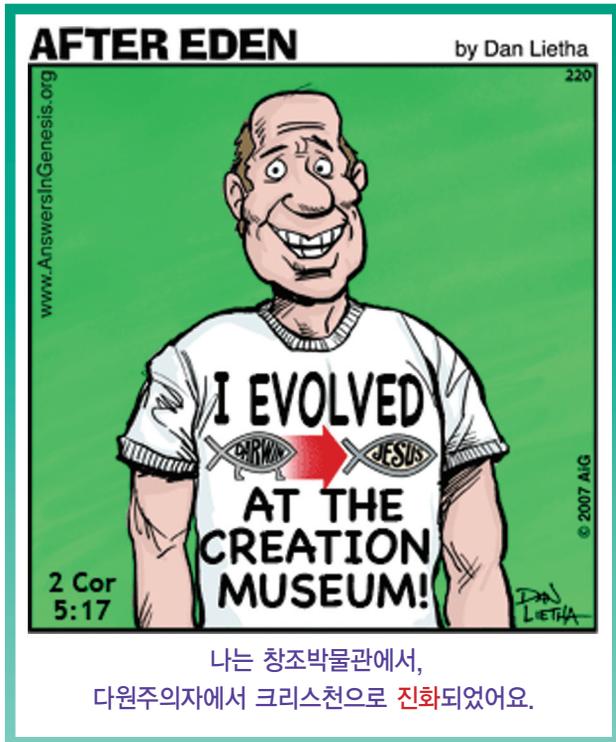
야한다.

몇 년 전 필자는 수억년의 지구와 빅뱅을 믿는 휴 로스(Hugh Ross)와 전국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논쟁을 한 적이 있다. 필자는 빅뱅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성경적인 증거들에 집중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모리스는 더 성경적이었지만 로스는 더 과학적이었습니다. 저는 로스를 지지하겠습니다”라고 끝을 맺었다(역자주: 로스가 더 과학적이라는 이 진행자의 성급한 결론은 많은 다른 “과학적” 연구들에 의해 지지받지 못한다). 어떻게우이 크리스천 진행자가 자신을 성경적인 변증가라로 부를 수 있겠는가? 성경은 충분하지 않은가? 무신론자인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 주어야 하는가? 젊은 지구에 대한 기반이 증거 면에서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때까지 그 질문을 미결상태로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대의 많은 변증 노력들은 형세를 관망하는 태도이며, 성경의 과학적인 정확성과 연관성에 대한 문제를 만나면 너무나도 자주 미끄러져 내리고 만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충분하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중요한 문제들

에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 그리스도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적합할 것이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 3:15-16).

존 모리스 박사, ICR 소장  
출처: ACTS & FACTS,  
Vol. 36 (No 12)



나는 창조박물관에서,  
다원주의자에서 크리스천으로 진화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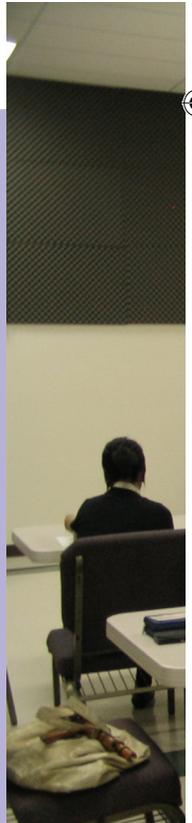


# ACT NEWS

## 창조과학학교, 창조과학 탐사여행

### 2세 청소년들을 위한 창조과학학교

얼바인 침례교회(담임: 한중수 목사)에서 10주간에 걸친 2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창조과학학교를 지난 12월 5일에 마쳤습니다. 학교 진행은 1부 창조과학 영화에 이어 2부 강의로 진행 되었는데 강의는 담당 전도사님의 통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30 여명이 수료하였으며 12월 22일에 샌디에고 창조과학박물관과 해안 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전도사님들과 성인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조과학학교를 마치고 쓴 2세 아이들의 소감문 일부를 간증란에 소개하였습니다.





### 미니창조과학학교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는 2007년 11월 11일부터 10 주간에 걸쳐 매 주 일 오후에 1시간 동안 창조과학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새로 믿은 성도들이 물질 세계(과학)와 성경에 대한 통일성에 대해 이해가 쉽지 않은 관계로 이 미니 창조과학학교를 신청하였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지만 현재 20여 명이 강의에 참석하고 있고 시간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또 한 번의 미니 창조과학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성인 교육의 일환으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교회에서 가능성을 물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은 교회들에게도 열려서 미주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독교대학 강의

작년 월드미션대학교에 이어 창조과학선교회의 강사가 2008년 봄학기에 처음으로 장로회신학대학의 강의(강사: 최우성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LA 근교의 대부분의 한국 신학대학교들의 자연과학 관련 교과목에 창조과학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모든 교육 과정에 창조과학을 가르쳐 비물질적인 분야 뿐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의 물질적인 분야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확실한 기초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대학교의 2007년 가을 학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무리가 되고 있고,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는 단기 과정이 “창조와 과학” 이란 과목(강사: 최우성박사)으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교사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교육자들이 잘 준비되는 기회가 되도록 강사와 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 웹페이지

이 뉴스를 받아 보실 때에는 창조과학선교회의 웹페이지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수년 동안 바꾸지 않고 있어 더 보기 좋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리고 이 페이지가 잘 유지/활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미주지부



**공사중입니다**  
 12월 20일까지-

Email: [info@hisark.com](mailto:info@hisark.com)  
 Tel: 213-381-1390





### 창조과학 탐사여행

2008년 1월 2일의 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탐사여행을 시작으로 현재 18회의 탐사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에 86차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새해에는 100회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수 천명이 다녀 와 그 효과가 잘 알려져 앞으로 더욱 많은 요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자인 이재만 부회장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미주에서 창조과학사역이 다방면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조과학탐사여행, 창조과학학교, 새신자 프로그램, 성인 교육 프로그램, 신학교 강의, 방송선교사역, 뉴스레터, 웹 관리, 후원자 관리, 문서사역 등 많은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더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에게 창조 진리가 선포되고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2세를 위한 사역은 너무 미약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2세 사역자들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간사가 곧 들어 오고 최인식 회장, 이재만 부회장, 이동용 중부지부장, 김무현 남부지부장, 최우성 서부지부장, 최태현 강사가 잘 활용되게 하시고 필요한 강사들도 보내 주시고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격변의 기념비 워싱턴 주

**워**싱턴 주에는 세계 지질학자들에게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산활동과 빙하시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필자가 지난 두 달간 워싱턴 주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 가운데 두 개의 중요한 지질학의 기념비가 있는데, 바로 세인트 헬렌산(Mt. St. Helen) 과 그랜드 쿨리(Grand Coulee)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최근에 하나같이 시간이 아닌 격변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중요한 자료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세인트 헬렌산

지질학자들이 가장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목격하지 않고 상상했을 때의 이론과 직접 목격했을 때의 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났을 때입니다. 이것은 역사과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일 것입니다. 세인트 헬렌산은 이 차이를 실감하게 하는 유명한 예입니다. 세인트 헬렌산은 1980년 화산이 폭발하여 엄청난 양의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이 화산재는 원자 폭탄 2만개에 해당하는 위력이었습니다.

이 화산재는 단 하루 만에 9m의 두께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산재와 물이 섞인 고밀도의 혼탁류를 이루어 흘러내리며 7.5m의 뚜렷한 지층을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층이 시간이 아닌 사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화산에 의해 수많은 나무들이 뿌리 채 뽑히고 근처의 스피릿 호수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약 백만 그루가 스피릿 호수 위로 내려온지 얼마 안되어 나무 껍질들은 가라앉아 석탄의 초기단계인 1m의 토탄이 바로 형성되었습니다.

세인트 헬렌산은 계곡과 협곡이 만들어지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단단한 암석을 고밀도의 혼탁류가 순식간에 30m 깊이의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흘러 계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계곡과 협곡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를 따라 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형성되었습니다.

위의 모든 것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과 모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퇴적지층과 석탄과 계곡과 협곡은 비교할 수 없이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큼니다. 그러므로 세인트 헬렌산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지층, 석탄, 계곡, 협곡 등은 전지구적인 노아 홍수 격변이 있었다는 훌륭한 예입니다.

## 그랜드 쿨리

그랜드 쿨리는 빙하시대 홍수에 의해 형성된 협곡입니다. 길이가 60mile에 달하고 깊이가 백여 미터가 넘습니다. 그랜드 쿨리를 다룰





때면 반드시 함께 언급해야 할 지질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카고 대학과 워싱턴 대학에서 교수였던 브렛즈(Harlen Bretz, 1882-1981) 박사입니다. 그는 빙하시대의 전문 지질학자며 특별히 워싱턴 지역의 빙하에 대한 역대 최고의 연구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연구할 당시에 그런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연구할 당시인 1920년경에 “그랜드 쿨리는 빙하가 녹으며 이루어졌던 커다란 미졸라(Missoula) 호수가 터지는 단 한번의 격변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는 글들이 수 페이지를 통해 할애되어 있습니다. “빙하기 홍수의 흔적에서(On the Trail of the Ice Age Floods, 2006)”는 다음과 같이 그의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렛즈 덕분에 지질학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짧고 자연적이고 격변적인 사건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받아 들이게 됐다. 그는 지질학자들



그러나 당시 모든 지질학자들이 모든 지형은 오랜 세월에 걸친 침식으로 형성되었다는 패러다임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그의 해석은 여지없이 무시되었습니다.

브렛즈는 아주 세밀한 사람이었으며 지형의 모습과 지질학적 증거들이 자신의 결론과 일치한다는 것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가된 증거를 갖고 30년 이상 계속 학계에 발표하였으나 기존 지질학자들의 편견으로 인해 번번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지질학계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결국에 브렛즈의 모델을 완전히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가 사망하기 2년 전 지질학자로는 최고의 영예인 펜로즈(Penrose) 메달을 수여 받게 됩니다.

빙하시대에 대하여 최근에 나온 책들에는 여지없이 그의 생애와 함께 브렛즈를 칭송하

에게 다른 격변에 대한 증거들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p. 9).” 세인트 헬렌산과 그랜드 쿨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증거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적 격변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예들의 일부입니다.

저희 가족의 안식뿐 아니라 성경의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두 달 반 동안 저희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시애틀 형제교회의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 시애틀 창조과학학교를 마치며

지난 11월 10일 개강한 시애틀 창조과학학교(CSTS)가 12월 10일 여덟 번의 강의를 끝으로 종강했습니다. 장소는 시애틀 형제교회. CSTS가 진행되는 동안 시중 성경과 과학적 증거를 통한 확신의 물결이 점점 높아갔습니다. 강의 사이사이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의 해결이 곧 감동”이라는

수식이 적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CSTS는 200여명이 등록하는 대성황을 이루며 그 숫자만 보아도 다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강 후 초과한 인원은 받지 않기로 할 정도였습니다. 본 교회뿐 아니라 시애틀의 다른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관심은 지난 4년간 교회직원에서 매년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정기적으로 보냈던 것이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탐사여행뿐 아니라 세미나, 수련회를 통해 창조과학을 꾸준히 효과 있게 사용해왔습니다. 그 동안 창조과학을 접했던 분들의 간증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기대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위의 세인트 헬렌산과 같은 격변의 현장을 함께 돌아보는 한층 다양해진 CSTS가 진행될 것도 기대합니다. 시애틀 지역에 창조과학을 통하여 믿음의 시작인 성경의 확신이 깊이와 넓이를 더 해가기를 기대합니다.





## 간증글

# 얼바인침례교회 중고등부 창조과학학교 수강생들 1

주: 본래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영문 그대로 실습니다

Before I took this class, I was confronted with endless questions about my faith and how it matched with the 'evidence' of our world today. I could not explain where our dinosaurs have come from, the incredulous story of Noah's Ark, nor the Creation of our world in 6 days. I could not disprove evolution, even though I knew it wasn't how God made us, and I could not answer my friends when they told me to prove the Bible. At times, I was very doubtful of the Bible even. Thank God in Heaven, I now have the answers to quiet my doubting fears.

- Jennifer Chung

Before this class, I always believed that evolution was not a belief and I had thought that it was true, but now I realize that it is false. Before this class, I believed aliens were real because of Area 51. Now I am not as sure that aliens are real. This class helped me with some of the different beliefs I had. Now I feel that I understand more about how earth was created.

- Kenicy Kim

After the various seminars my belief of the age of the Earth changed, I also learned that monkeys aren't our ancestors. I learned that god is our Creator and he created everything else in this world. My view on the Bible changed because I learned that man didn't descend from monkeys; but from God

- Paul Chong

I knew that God created the Earth, but I also thought that God used evolution to make the world. Learning from an evolutionist science teacher, my ideas on creationism began to waver. Peer pressure from my friends sometimes made me think to myself, if I was really a Christian. Even if I wanted to spread the word of creationism, I didn't know enough to back up anything I said regarding evolution. Now that I gained the knowledge of creationism, I am now getting the self-esteem to finally start to mention the topic to my fellow peers.

- Jane Kim

Before this class, my views of evolution & creation was a little hazy. I learned some parts of evolution & not much creationism. I knew the world was very old & that was basically what I believed. I didn't believe in evolution for sure but I believed that God did make the world in 6-7 days. But after this class, I began to find defense against evolution.

- Kayla Park





## 사역일정

### 2008년

- 1/2-4 4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213-381-1390)  
 1/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목회자, 알바인 침례교회 주관)  
 1/22-25 창조과학 탐사여행(마사다 투어 주관, 본국, 02-736-9577)
- 
- 2/4-6 방하시대 탐사여행(새시대 목회자, 이재만, 최우성, 404-944-1872)  
 2/8-10 임페리얼 한인교회(이재만, 760-679-6348), CA  
 2/11-15 창조과학 탐사여행(가든그로브 연합감리교회)
- 
- 3/7-8 산돌교회(이재만, 979-575-2778), Pine Brook, NJ  
 3/9-11 임마누엘 교회(이재만, 201-461-5055), Palisades Park, NJ  
 3/12-14 찬양교회(이재만, 732-805-4050), Somerset, NJ  
 3/15-16 뉴욕영광 장로교회(이재만, 718-225-3021), Bayside, NY  
 3/24-27 창조과학 탐사여행(시카고 교회연합 847-845-5368)  
 3/31-4/3 창조과학 탐사여행(형제교회, 중교등부 425-273-4545)
- 
- 4/7-9 창조과학 탐사여행(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858-717-0544)  
 4/14-17 창조과학 탐사여행(Living Word 침례교회 408-930-8349)  
 4/28-5/1 창조과학 탐사여행(시애틀 형제교회, 425-488-1004)
- 
- 5/24-26 창조과학 탐사여행(LA 온누리교회)
- 
- 6/2-5 창조과학 탐사여행(시애틀 형제교회 Conference 목회자)  
 6/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858-717-0544)
- 
- 7/1-5 창조과학 탐사여행(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404-509-8358)
- 
- 8/18-23 창조과학 탐사여행(House of Siloam, 일본인, 951-245-9500)  
 8/30-9/1 창조과학 탐사여행(월셔/알바인/샌디에고 온누리교회)

## 후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

